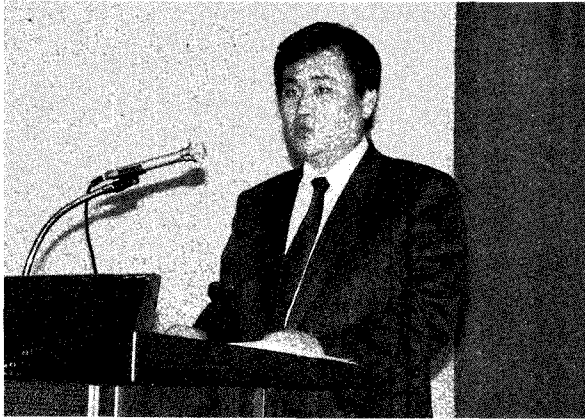


에이즈 업무를 담당하면서...



박은철/부산직할시 보건과

이 글은 세미나에서 발표된 관리요원과 환자사이에서 격고 있는 실제 체험담이다.

이 글을 통해 AIDS 환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에이즈란 병이 어떤 것인지. 이 글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에이즈란 질병이 새롭게 탄생되어 외국의 해외도피란에 흥미기사로 다루어지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지금 에이즈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흥미보다는 심각한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되어 우리의 생활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국내 제일의 항구 도시이며 많은 선박 및 선원들이 왕래하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은 전국의 약 30%에 해당되는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고 이들의 대부분인 약 75%에 해당하는 자들이 외항선원 출신으로서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부산은 12개구중 강서구

를 제외한 11개구에서 에이즈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어 에이즈는 이제 보건의료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우리시의 여건속에서 보건소 업무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말미암아 에이즈는 거부감과 기피의 대상에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연구하는 친근한 사이로 점점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감염자와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통하여 진실하고 솔직한 대화를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관리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고, 감염자란 이유만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도 있다.

일선보건소에서의 이러한 어려움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사례를 모아 여러분들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사례1—에이즈 첫감염자와 5년이 지난 지금

전국에서 에이즈 감염자가 첫발생된 '85년이후 일년이 채 못되어 우리 부산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에이즈 감염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30대 여성으로서 특수업체부 출신인 이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 한 사람 없는 외톨박이였으므로 자기의 직업인 특수업체부의 생활을 청산한다면 의식주의 해결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였으며 이와같은 선택도 없는 상태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부산직할시와 보건소에서는 온갖 방법을 깊이 연구한 끝에 한가지 방법을 최종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그 방법은 감염자를 조용한 암자나 절 등에 수양차 거주토록 하는 일이었다. 본인에게 이러한 뜻을 충분히 설명한 결과 자기도 그러한 방법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우선 생활비 30만원을 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하고, 보건소 담당자와 인근 사찰을 사전 방문하여 거거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한 결과 멀리 떨어진 암자에서 받아주기로 약속하여 그곳에서 수양토록 조치했다.

이 사람은 1여년 정도 그곳에서 기거하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 그의 직업인 특수업체부의 생활을 할려고 했지만 얼마 안가서 그는 자신의 건강을 이기지 못하고 쓸쓸한 최후를 마쳤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부산에는 60여명의 감염자가 생활하고 있지만 최초의 감염자에게 보였던 열성과 헌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며,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해 본다.

●사례2—에이즈 감염자의 죽음과 우리의 자세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정기검진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도 확산 일로에 있을때 우리시에서는 최초 부부 감염자가 발생되었다.

또한 이들의 부부는 감염후 임신을 하

여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여아를 출산한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자였다. 이러한 인연에서부터 본인은 이들 부부와 관계가 다른 사람들보다 매우 가깝게 되어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상의하고 의논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정기적인 검사와 예방접종 등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주었다. 다행히 이들의 부부가 출산한 자녀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속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타나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

남편인 사람은 선원 출신으로서 과거부터 과격한 행동으로 인하여 항상 주의 인물이었으나 적극적인 교육과 설득으로 새롭게 마음을 잡고 술을 끊은 후 조그마한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가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들의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며 상대방을 원망치 않고 어느정도 행복하게 살았으나 갑작스런 남편의 병세 악화로 병원에 입원중 완치되지 못하고 본인의 뜻에 따라 집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부인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

우리들은 에이즈 감염자가 최후를 맞게 되는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앞으로도 많이 대하게 될 것이다. 비록 인생의 길고 짧은 것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들 하지만, 에이즈란 질병으로 인하여 짧은 일생을 마칠 수 밖에 없는 감염자들을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들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남들이 기피하

고 멀리 하는 곳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참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그들의 길지 않은 일생에서 영원히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 믿는다.

●사례3-에이즈 담당자로서의 애환과 보람

사회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에이즈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이즈 업무를 최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고충과 애환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한사람의 감염자 발생에 사회면 톱기사로 선정하는 일부 신문들의 지상 보도, 정확한 근거없이 흥미위주로 다루는 잡지들의 무분별한 경쟁, 감염자와 접촉을 위해 전화시 "무엇 때문에 전화질은 계속하느냐"는 원망스런 말투와 "한번 더 성가시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공포섞인 대화는 우리들을 슬프게 한다.

감염자와 만날때마다 식사와 차를 위한 경비 지출은 허전한 호주머니를 더욱더 외롭게 한다. 조그마한 부주의로 감염자에 대한 문제 발생시 위로부터 들려오는 책임의 한계가 우리들을 안타깝게 한다.

에이즈를 원망하며 자포자기 하는 감염자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점차 떨어져 가는 면역능력이 초조감을 더해주며, 감기라도 걸리는 날엔 절망감이 앞서서 아픔이 있다.

우리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